

영화 <기적>

오디션 대본

-성인 남자 30대-

- 영화 <연애의 목적>의 “유림”역을 연기해 주세요.

#1. 빈 교실 (낮)

햇빛이 건물 너머로 넘어가서인지 벌써 많이 어두운 교실.

유림은 아이들 책상에 아무렇게나 걸터앉아 있다.

유림 잠깐 일루 와 봐요.

잠시 망설여지지만... 다가와 서는 흥.

유림 여기 앉아 봐요....나, 머리 아픈데 잠깐 기대도 되죠?

유림, 흥에게 기대며.

유림 너무 좋아.

느끼하게 구는 유림. 정지한 듯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싸늘하게 유림을 내려다보며 말을 던지는 흥.

흥 선생님 여자친구가 서울여고 김희정 선생님이죠?

멈칫 하는 유림. 흥을 올려보며

유림 어떻게 알아요?

흥 저번에 말했잖아요. 제 친한 언니가 그 학교 다니다구.

유림 (장난스럽게) 말했어요?

흥 뭐요?

유림 내가 짹짹 거.

흥 (당연하다는 듯) 네.

흥의 허리와 엉덩이를 감싸 안았던 손을 풀며

유림 뭐요?

흥 안돼요?

유림 (화가 난 듯) 진짜 말했어요?

흥의 눈을 화난 눈빛으로 보는 유림. 마치 흥이 ‘장난이에요’ 라고 말해주길 바라는 듯 하다.

흥 (당당하게) 네.

어이가 없는 표정으로 흥을 바라보던 유림. 화가 나는 지 다그치는 말투로

유림 뭐라 그랬는데?
홍 그냥.. 최선생님에 대한 거요.
유림 저에 대한 뭐요.

뭔가 큰 약점을 잡았다는 듯 승자의 눈빛으로 야유하듯 가벼운 미소를 흘리는 홍.

홍 다요. 뭐 찢리시는 거 있으세요?

허를 찢린 유림. 하지만 그걸 들키지 않기 위해 오히려 어이없다는 표정으로

유림 이보세요. 최선생님.. 아니 그건 최선생님과 저 둘만의 개인적인 문제인데..
상식적으로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.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이 아니면....
정상적인 사람의 개념으로 그게 이해가 가는 행동이에요?
최선생님.. 진짜 좀 미친 거 아니에요?

특-인기척에 고개를 돌리면.. 학생들 몇 명이 지나간다. 말문을 멈춘 유림.
계속 여유 만만한 홍의 표정. 유림 잔뜩 화난 표정을 애써 억누르며

유림 잠깐 나가서 얘기해요.. 잠깐만 나가서.

팔짱을 끼고 유림을 비웃듯 서 있는 홍. 그런 홍의 태도에 점점 약이 오르는 유림

유림 교육계는 굉장히 고지식하고 엄격한 곳이에요.
난 최선생이 나이가 좀 있고 처음이라서
되도록 편하게 적응하게 해주고 싶었고..
내가 한 번이라도 선배 대접 받으려고 무게 잡은 적 있어요?

한쪽 입술 끝을 치켜 올리며 비웃 듯 유림을 응시하는 홍.
홍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 참을 수가 없는 유림. 갑자기 비위가 상한 듯

유림 웃어요, 지금?

주춤, 표정이 굳는 홍. 하지만 다시 어디 한번 계속 해보라는 듯 여유 있는 표정으로 되돌아오는 홍.

유림 최선생은 진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.
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여기서 살아남기 힘들어요.
난 최선생같은 교생 참 봤어요.
내가 최선생한테 편하게 대해주니까 우습게 보여요?

가증스럽다는 듯 유림을 뺨히 쳐다보는 홍. 주춤하는 유림.

울컥 치미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, 흥의 어깨를 붙잡고 마구 흔들어대는 유림.

유림 최선생님 왜 이래? 정신 차려!
흥 (무섭도록 처연하게 바라보며) 싫으면 관두세요.

뒤돌아 가는 흥, 유림, 그런 흥을 잠시 쳐다보다 흥의 팔목을 확 낚아채는 유림.

유림 조용한데 가서 얘기 좀 해요.
흥 (팔을 뿌리치며) 하세요.
유림 여긴 사람이 많잖아요.
 최선생님이랑 자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, 나도 이젠 자기 싫어요.
 최선생님을 좋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. 좋아서... 왜 그렇게 사람마음을 몰라줘요?

심각해 보이는 유림의 얼굴.